

여름에 벌어지는 젊음의 축제들

성기완 | 대중음악평론가, 3호선버터플라이 멤버

오는 8월 15일로 우리는 광복 60주년을 맞는다. 여전히 남과 북은 갈라져 있고 평화는 우리에게 현실이라기보다는 간절한 하나의 꿈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절실히 평화가 염원되는 고장이 우리나라 한반도가 아닐까 싶다. 평화의 염원을 담아 한반도 어디에선가 국제적인 록 페스티벌이나 '피스 레이브(peace rave)' 같은 축제를 개최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여름은 록 페스티벌의 계절

여름은 그 어느 계절보다도 야외 행사나 공연이 많다. 피약별이 내리쬐는 대낮에는 큰 텐트라도 쳐놓고 그 안에서 공연을 즐기고 시원한 저녁이 되면 차양도 빛도 필요 없이 그저 한데서 공연이나 행사를 하면 된다. 탁 트인 곳에서 여름의 열기를 느끼며 참여하는 공연 경험은 특별한 추억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여름은 전세계적으로 '페스티벌'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지구 북반구의 대규모의 록 페스티벌은 여름 시즌에 밀집해 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일본에서는 매년 여름 국제적인 규모의 <후지 록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올해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어김없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 후지 록 페스티벌은 회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가고 있는 분위기다. 영미를 중심으로 전세계의 유명한 록 뮤지션들을 어렵지 않게 섭외하여 록 음악의 대향연을 펼쳐 보이는 명실공히 세계 일류급의 록 페스티벌이 된 것이다.

가까운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특히 유럽 지역에서 '록 음악 축제'는 여름내 상황을 이룬다. 전통과 명성 면에서 최고의 록 페스티벌임을 자부하는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은 이미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전세계에서 모인 록 밴드들, 그리고 록 팬들과 더불어 성황리에 끝을 맺었다. 그 밖에도 6월 29일에는 <글래스고우 록 페스티벌>이, 그리고 6월 30일에는 <맨체스터 록 페스티벌>이 개최됨으로써 영국은 여름 록 페스티벌의 천국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록 페스티벌과 함께 여름을 장식하는 것이 대규모의 이른바 '레이브 파티'라는 것이다. 레이브 파티는 주로 '테크노 음악'을 중심에 놓고 벌이는 파티이기 때문에 뮤지션들이 거의가 다 DJ들이다. DJ가 틀어대는 격렬한 비트의 전자음악을 통해 전세계의 젊

은이들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대표적인 대규모 레이브 파티를 꼽으라면 단연 베를린에서 매년 열리는 <테크노 음악 축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러브 퍼레이드’와 ‘게이 퍼레이드’

베를린에서는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게이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7월 첫 주 일요일에는 이른바 테크노 퍼레이드의 효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테크노 레이브 파티인 ‘러브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두 행사 모두, 기존의 성적 구분과 정체성을 무화시키는 행사라는 점, 테크노 음악을 중심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 상통한다. 1989년 닥터 모테라는 디제이가 자기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그야말로 ‘심심해서’ 100명 남짓한 사람들과 함께 테크노 퍼레이드를 벌인 것이 효시가 된 이 행사는 100만이 넘는 인파가 전세계에서 모여 레이브를 즐기는 대규모 행사로 발전했다.

지금은 하위 문화적인 특성을 상실한 채 베를린이라는 도시 전체가 밀어주는 상업적인 행사로 변질되고 말았지만 러브 퍼레이드는 여전히 1990년대 이후의 젊은 이들이 예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노는 새로운 형식의 축제를 대표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젊은이들이



<후지 록 페스티벌> 현장



<우드스탁 페스티벌> 때 히피들이 사용하던 블루버스

성 정체성을 허무는 엽기적이고 에로틱한 분장을 하고 축제에 참가하지만 서로 잘 만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베를린 자유대학 연극학 연구소 학자인 엔스 로젤트는 “거의 소독된 병원을 연상시키는 순수한 에로스”라는 표현을 썼다.

이 퍼레이드는 자기 속의 또 다른 자기를 보여주는 연출의 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기 연출이 특정하게 코드화되어서 거의 유니폼화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레이버 측은 ‘즐거움의 정글’을 헤매는 외로운 전사와 같다. (……) 이 레이버 퍼레이드는 이제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하위 문화적 행사이지만, 이 행사의 성적 분위기와 하위문화는 한낱 게임의 일부일 뿐 실제적인 영향력이나 결과는 가지지 못한다 (……) 사람들은 80만 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새로 알지 못하게 된다.

(http://berlinreport.com/3/view.php?id=cultur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2)

이것은 분명히 히피 시대와도 다른 새로운 공감의 방식이다. 어쩌면 ‘공감’이라는 말이 우스울지 모른다. 사람들은 100만 명의 군중 속에서 엑스터시 같은 약을

축제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일이다,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뒤집을 것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다시 말해 사람들의 편견과 자기들의 스트레스 모두를 뒤집을 축제의 장들이 필요하다.

베를린에서 1주일 간격으로 열리는 게이 퍼레이드와 러브 퍼레이드는 지금의 시대를 사는 서구 젊은이들이 즐기는 축제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 즉 심심함의 뒤집음과 여전히 남은 억압적 정체성의 뒤집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축제들이다.

일상의 혁명, 〈우드스탁 페스티벌〉

이와 같은 대규모 페스티벌의 기원을 따지자면 멀리 히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의 서구 문화는 급격한 소비사회,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문화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청년 문화’가 사회 전면으로 떠오른 점이었다. 예전에는 성인들의 사회로 진입하기 이전의 일종의 수련기나 준비기로 취급받았던 청년기가 성인 사회와 맞서는 하나의 ‘반문화’적 성격을 띠면서 오히려 주류 사회의 질서에 문제제기를 하던 시기가 바로 1960년대였다. 일종의 ‘일상의 혁명’이라 할 히피즘이 그 중심에 있었다. 히피즘은 청년들의 대규모 시위나 페스티벌을 이끌어내고 진행시키는 전문 기획자 집단을 양성했고 그들에 의해 1960년대 후반 대규모 록 페스티벌의 개최가 시도되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다. 1969년 8월 15일부터 3일 동안 미국의 뉴욕 주 맥스 야스거의 농장에서 개최된 우드스탁 페스티벌의 경우, 적게는 30만, 많게는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모인 이 대규모 페스티벌은 히피들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결집한 하나의 과시적 모임이면서 동시에 히피즘이 상업주의로 변모해 가는 극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이 여름에 이런 외국의 페스티벌 문화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한국에도 많은 페스티벌 지역 축제들이 있지만 성공적인 국제적 규모의 록 페스티벌이 이제 하나쯤 나타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이다. 2000년을 전후



‘저라삼’ 이 모델로 삼고 있는 핀란드 포리 재즈 페스티벌의 오후 풍경

하여 본격적인 국제 록 페스티벌의 시도가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인천 송도의 별판에서 개최했던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이었다. 이들의 일정으로 외국의 록 뮤지션들과 한국 록 뮤지션들을 한데 모았던 이 행사는 불행하게도 악천후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다.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날씨가 좋아 행사가 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한국에서의 국제적 록 페스티벌이 약간은 일찍 자리 잡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

오는 8월 15일로 우리는 광복 60주년을 맞는다. 여전히 남과 북은 갈라져 있고 평화는 우리에게 현실이라기 보다는 간절한 하나의 꿈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절실히 평화가 염원되는 고장이 우리나라 한반도가 아닐까 싶다. 평화의 염원을 담아 한반도 어디에선가 국제적인 록 페스티벌이나 ‘피스 레ιβ(peace rave)’ 같은 축제를 개최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의 젊은이들도 소비 사회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적 ‘플레이 그라운드’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런 저런 필요나 뜻이 모이면 록 음악이나 테크노 같은 음악을 중심으로 환관 놀아보는 페스티벌의 개최에 대한 공감대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생길 수도 있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